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 성 진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Abandonment Schema
in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Relationship addiction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 성 진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 성 진

이성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A. 관계중독	6
B. 자아분화	7
1. 자아분화의 개념	7
2.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	8
C. 유기도식	9
1. 유기도식의 개념	9
2. 자아분화와 유기도식의 관계	10
3.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관계	10
III. 연구 방법	12
A.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12
B. 측정 도구	13
1. 관계중독 척도	13
2. 자아분화 척도	13
3. 유기도식 척도	15

C. 연구절차	16
IV. 연구 결과	17
A. 주요 변인별 기술통계	17
B.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8
C. 매개 모형 검증	19
V. 결론 및 논의	21
VI. 참고문헌	24
VII. 부록	27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12
<표 2> 관계중독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13
<표 3>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14
<표 4> 유기도식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15
<표 5>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17
<표 6>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8
<표 7>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19

그림 목차

<표 1> 연구 가설 모형	5
<표 2>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분석	20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bandonment Schema in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Relationship addiction

Lee Seong jin

Advisor : Prof. Hae-soo Kweon, Ed.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mediated effects of Abandonment Schema on the Relationship Differentiation of Self and Relationship addiction among Undergraduates. This research was done by conducting surveys from 304 undergraduates who are attending universities in Gwangju, Jeollanam-do, Jeollabuk-do. The scales used in the study were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SI-R, The Abandonment Schema of Korea Schema Questionnaire and Relationship Addiction Questionnaire-30 for Undergraduates: RAQ-3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4.0.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result in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iation of Self, Abandonment Sche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Differentiation of Self affects Abandonment Schema, Relationship Addiction. Third, Abandonment Schema affects Relationship Addiction. Fourth, Abandonment Schema was partially mediated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Relationship Addic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Key words: Abandonment Schema, Differentiation of Self, Relationship addiction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시키며 관계 속에서 나와 타인의 의미를 구축해 나간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현실에서의 관계 뿐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가상 관계 등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을 맺고, 유지하며 살아간다.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기 후기 또는 성인 초기는 친밀감 형성이라는 중요한 발달 과업을 지닌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여태까지 키워온 자아정체감을 바탕으로 가족 이외의 타인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지지, 감정의 교류 등의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여러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이수연, 이동훈, 2017).

최근 연인관계 내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검거된 데이트 폭력의 피의자는 4565명이며, 살인·강제추행·강간 등 데이트 폭력으로 매일 25명 정도가 검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2015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NS뉴스통신, 2018년 3월 13일). 더 놀라운 것은,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72.5%가 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다(김현옥, 2001).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의 심리적 기제와 같은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또한, ‘매 맞는 아내 증후군’과 같이 데이트·가정 폭력에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관계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 내적인 요인으로 ‘관계중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중독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중독’이라는 병리적 관점에서 본 개념이다. 중독에는 물질중독과 관계중독이 있는데, 물질중독이란 알코올, 마약, 약물, 니코틴, 카페인과

같은 중독적 물질에 의존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섭취중독이라고 하기도 한다(이지원, 이기학, 2014). 과정중독이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중독으로 도박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성 중독 등을 포함한다. 물질중독과 마찬가지로 과정중독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특정 행동이나 물질에 대해 집착하는 것과 특정 행동이나 물질 복용을 중단한 이후에 나타나는 금단현상 등이 있다(우상우, 2014). 관계중독인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 자기 스스로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치료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관계가 그들에게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Martin, 1994; 정은정, 2018, 재인용).

‘관계중독’을 보이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사랑-찾기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우상우, 2014). 또한 관계가 중단되었을 때 또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며,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을 때 자포자기 한 마음을 갖거나 혼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Anonymous, 1986; Wolfe, 2000). 이들은 관계가 깨어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을 느꼈던 대상과의 로맨스를 계속해서 경험하고자 하고, 일시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관계중독인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과정 자체에도 매우 몰입되어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찾기 위해 사이버상의 관계를 맺으려고 많은 시간을 쓰는 반면 타인들과 친교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우상우, 2014). 이처럼, 상대에 상관없이 관계에 중독되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 관계에 중독된 관계중독의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장시온, 2015). 즉, 중독적 관계패턴으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계중독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중독적 성격,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 유형, 대인 외상 경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중독적 성격의 기반을 지닌 사람들은 관계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경우에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의존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경험하고 다시 고통에 빠지게 되고 관계중독이 활성화된다(김하늘, 유재민, 2017). 부모의 양육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인해 자율성이 결핍되고 의존성이 발달하여 관계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게 한다(김이슬, 권혁철, 2015). 이는 불안정한 정체감과 소외, 결핍과 같은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관계중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한나, 가요한, 2017). 애착유형이 관계중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애착불안이 애착 회피에 비해 관계중독에 더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김지연, 심혜원, 2016). 또한, 아동·청소년기, 성인 초기의 외상 경험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준다. 아동기에 정서적, 신체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거나 부정적 경험을 하게 한 가족 환경은 관계중독의 가장 큰 원인이며(김수민, 2016), 특히 신체적 외상경험보다 ‘정서적 학대’가 관계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손승희, 2017).

관계중독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경험을 통해 관심과 지지를 원한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관심과 지지를 주는 상대를 만나면 급격히 그 관계에 중독적으로 빠지게 된다.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대상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맹목적인 노력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에 급급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강은숙, 2005).

Bowen(1976)의 가족치료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자아분화는 개인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정서적 균형 능력이다(한미향, 1999). 국내 여러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타인과의 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애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함으로써 하나의 개체로 존재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박지선, 2000; S. C. Nam & Y. D. Yoo, 2007).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정서와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분리된 개인으로서 경험을 충분히 가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된다(최현미, 1997). 이지홍(2015)과 조경미(2016)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분명한 자아 정체성이 부재하므로 중독적 관계 패턴을 통해 이러한 내면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가족의 맥락에서 형성된 자아분화는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아분화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아분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관계중독에 이르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유기도식을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기도식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유기, 거절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의미 있는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느끼며,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Young, & Lindemann,

2002). 유기도식을 지닌 사람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여, 피해를 주는 관계까지도 끊어 내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며 생의 전반에서 타인과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방해한다.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부정적 관계를 통해 대인외상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인지적 틀인 유기도식을 갖게 된다. 유기도식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며(이지영, 손정락, 2009), 타인과의 관계가 쉽게 끝나버리고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은 언제든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안에 노출됨으로써 관계중독성 집착행동을 보인다(김하늘, 유제민, 2017).

자아분화와 유기도식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아분화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대인 및 사회불안, 부적응 심리 도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학생 표본을 통해 Bowen이 연구한 자아 분화 이론에서는 자아분화, 사회적 불안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수평적 관계에 대한 거부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낌으로써 대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Milad Sabzehiraye Langroudi 외(2011)와 Mahnaz Moradi(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적 상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과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eleg-Popko, 200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 전반에 걸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초기 부적응 도식은 개인의 대인관계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안하얀, 서영석(2011)의 연구에서는 다른 도식들에 비해 유기와 불안정, 불신과 학대, 정서적 결핍, 결합과 수치심 도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기 부적응 도식 중 유기도식이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원가족의 맥락에서 형성된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는 이미 밝혀진 바가 있지만, 자아분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분화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기도식이 매개효과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중독적 관계패턴을 지닌 대학생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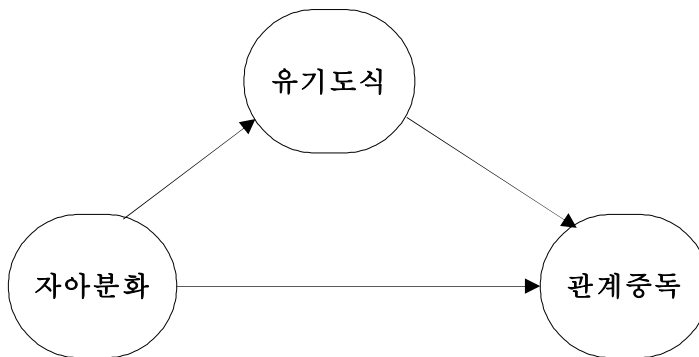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자아분화, 유기도식, 관계중독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를 유기도식이 매개할 것인가?

본 연구의 연구 가설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가설 모형

II. 이론적 배경

A. 관계중독

1. 관계중독

관계중독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보이는 양상이 ‘중독’이라는 병리학적 관점으로 본 개념이다. 중독은 크게 물질중독과 과정중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중독은 알코올, 마약, 약물, 니코틴, 카페인 등과 같은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다. 과정중독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행동중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인터넷, 게임, 도박, 쇼핑, 음식 등과 같은 일종의 활동이나 상호작용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박한나, 2015). 물질중독과 과정중독은 모두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데, 특정한 한 가지에 강박적으로 몰입하고 갈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 중독된 대상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신체적인 기능이 위협받게 된다(우상우, 2014).

관계중독은 관계 맺는 것 자체에 중독되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몰입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에 중독되어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Martin, 1994). 관계중독을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반복적인 대인관계의 실패 경험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안해한다. 그 결과 자신과 상대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복적인 관계 패턴은 지속적이어서 왜곡된 사고와 정서를 강화하여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일지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다(김이슬, 권혁철, 2015).

우상우(2014)의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했다. 첫째,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행동, 즉 사랑-찾기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 둘째, 관계가 중단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한 행동을 하고자 애쓴다.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는 자포자기한 마음을 갖거나 혼자가 되는 것처럼 느낀다. 셋째, 중독적 행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관계가 깨어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을 느꼈던 대상과의 로맨스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넷째, 중독된 행동을 끊어버리거나 통제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고 끊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는 것에 그친다.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항상 사랑하고자 하고 끝이 보이는 일시

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기도 한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찾기 위해 사이버상의 관계를 맺는 등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다. 여섯째, 사랑을 맺기 위한 관계를 추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직업이나 가족 내에서 맡고 있는 임무를 무시하거나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곱째, 관계중독의 결과로 우울해하거나 경제적인 손실로 힘들어할 수 있지만 또 새롭게 맺게 될 관계를 위해 애쓴다.

B. 자아분화

1. 자아분화의 개념

자아분화는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을 구성하는 6가지 개념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Bowen(1976)의 가족치료 이론에 따르면 가족의 정서 과정이 세대를 통해 지속되며, 이전 세대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다음 세대로 관통하여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은 가족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습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치료 목표를 개인이 속한 가족의 정서과정을 이해하고 가족원의 분화를 통해 가족체계를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에서 핵심 개념인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개인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서적 균형 능력이다(한미향, 1999). 이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것으로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아 세대 간의 전이가 되기도 한다(최연화, 2012). 자아분화는 자신이 속한 체계에 대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수준이며, 개인의 지성과 감성의 분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개인치료적 특징을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를 이야기한 보웬(Bowen)의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자아분화에 대해 정신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대인관계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개인이 속한 체계 속에서의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변인인 것이다

자아분화는 개인의 기능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가 아닌 이론적인 의미로서 감정적, 지적 기능의 융합이나 분화의 정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분화수준에 따라 개인의 기능은 매우 다르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일수록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대인관계에서 유연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

과의 정서적 융합이 적고 자아감이 확실하고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를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거나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은 낮다(이유리, 홍정순, 2016). 특히,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인지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김희숙, 김영금, 김종운, 2016). 반면, 분화가 덜 된 사람은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자아가 발달하게 되어,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즉,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 적이고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증상의 원인은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본다(Bowen, 1976; 정성경, 김정희, 2004).

김나루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분화는 가족관계 경험과 밀접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낮은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회적 상황 등에 실제 처하거나 상상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대인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자아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분명한 경계 설정이 어려우며, 타인의 생각이나 정서에 지나치게 융합되어 분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 즉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 두려움에 대해 방어하려는 행동들,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행동 등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최연화, 2012). 이를 통해, 가족 관계에서 형성한 자아분화는 그 수준에 따라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관계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하게 하며, 그들의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아분화와 관계증독의 관계

자아분화와 관계증독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하지만, 이지홍(2015)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분화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관계증독의 정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지분화,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모두 관계증독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적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잘 분화되어 있고 자신과 타인을 잘 분리하여 적절한 거리를 두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와 타인

을 분리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이지홍, 2015). 이는 조경미(201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인데, 성인초기 자아분화의 수준은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유기도식

1. 유기도식의 개념

심리치료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그런 심리적 증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수정, 변화시키는 것이 심리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심리치료의 목적에 맞게 여러 이론가들은 인지치료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왔다. Ellis는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를 제시하였는데,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인지, 정서,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신념(Belief)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인지치료를 발전시킨 Beck(1995)은 개인의 생활이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수준의 신념, 즉 핵심 신념(core belief)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지치료의 최종 목표임을 말했다. 이를 통해, 인지에 기반을 둔 심리치료 이론들은 심리적 증상을 초래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바탕, 기저에 원인을 다뤄야 한다는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조성호, 2001).

Young(1990)은 도식·중심 치료 이론을 제안했는데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 :EMS)을 통해 심리적인 부적응에 대해 설명하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로서 유기, 학대, 무시, 거절 등 아동기 발달의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기억·정서·신체감각·인지의 집합체이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2005). 생애 초기부터 일생동안 지속되는 자기 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은 개인에게 있어 생각, 느낌, 행동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안하얀, 서영석, 2011). 초기 부적응 도식은 총 5개의 도식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손상된 한계', '타인 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가 이에 해당한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특히 가족 내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데, 초

기 성장 환경의 결핍이나 외상적인 경험 등으로 인해 안전감, 안정감, 돌봄, 수용을 포함한 주 양육자와의 안정 애착 등 각 발달 시기에 맞는 발달적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아동기에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될 때 부적응적 심리도식이 발생하는 것이다(안하얀, 서영석, 2011).

여러 부적응 도식들 중,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심리 내적,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유기 도식이라고 한다. 유기도식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유기, 거절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도식으로, 의미 있는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다고 느끼며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분리 불안의 핵심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유기공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이 돌봄을 받고 안정적으로 한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로 성인이 느끼는 유기공포는 Young이 제안한 유기도식으로 설명 가능하다(이설아, 박기환, 2013).

2. 자아분화와 유기도식의 관계

자아분화와 유기도식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초기 부적응 도식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부적응 도식과 자아분화에 대해 심리적인 개입을 한다면 사람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Mahnaz Moradi, Tayebeh Akbari, Manzieh Dausti, 2015). 또한, Milad Sabzehiraye Langroudi, Hamid Bahramizadeh, Yadollah Mehri (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자아분화와 도식이 청소년의 반추와 강박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냈다.

3.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관계

특히, 어린 시절 애착의 대상자인 주 양육자로부터의 유기 경험은 편도체에 저장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경험했던 부정적인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적인 기억이 인출되면서 강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Young, Klosko, & Weishar, 2003; 이설아, 박기환, 2013 재인용). 이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신 병리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이지영, 손정락, 2009), 고립/단절, 몰락, 상실

우려, 내성취약 등의 부적응 도식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조성호, 2002)는 선행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유기도식은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기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 불안과 함께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데(안하얀, 서영석, 2011), 자신과 타인의 애착관계가 쉽게 끝나버리고,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은 자신보다 비교적 상위에 있는 대상이 등장할 경우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 도식이 강하기 때문에 보상심리의 차원에서 타인과의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몰입하는 양상을 보인다(유계숙, 박주희, 2014).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중독의 성격적 기반을 지닌 사람들은 의미 있는 대상이 언제든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다른 어떤 대상에 몰입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회피하려는 기제를 작동함으로써 관계중독성 집착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김하늘, 유제민, 2017).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광주, 전남, 전북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무성의하게 실시하였거나, 중간에 응답을 중단한 46부를 제외하여 총 304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 및 검증을 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개입을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 설명서에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익명성 보장, 설문 과정 중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 가능함과 불이익 없음에 대해 공지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만 19세부터 28세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2.24(SD=2.073)이었다.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 = 304)

요인	구분	N(%)
성별	남	126(41.4)
	여	178(58.6)
학년	1학년	95(31.3)
	2학년	61(20.1)
	3학년	105(34.5)
	4학년	43(14.1)

B. 측정 도구

1. 관계중독

관계중독 질문지는 Susan이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개인을 감별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총 40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이상우(2014)는 RAQ-40에 대해 단일요인으로서의 적합도를 타당화 하였고, 대학생 집단에 맞게 RAQ-40에서 깊은 연애경험에 대한 질문에 해당하는 10문항을 제외한 후 RAQ-30에 대해서도 단일요인으로써 적합도를 타당화 하였다. 각 질문들은 이성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 행동의 중독적인 특징들을 묻는 문항들로, 예로는 ‘나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며, 고독을 즐기지 않는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우(2014)의 연구에서 타당화한 관계중독 질문지-30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적 성향과 정도가 강한 것으로 채점된다. 이상우(2014)의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표 2> 관계중독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N = 304)

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관계중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92

2. 자아분화

자아분화 척도는 Bowen의 이론을 바탕으로 Skowron과 Friendlander(1998)이 제작한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DSI-R)을 강은숙(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는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성인들이 맺고있는 중요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개인의 분화 정도의 측정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4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가지 하위 변인은 정서적 반응성, 자기 위치, 정서적 단

절, 타인과의 융합이 있다. 정서적 반응성 척도는 상황이나 관계 안에서 개인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감정에 대한 통제능력 등의 분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내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다’ 등이 있다. 자기 위치는 개인이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아주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정서적 단절은 애착에 대한 강한 부정이나 고립 등의 정신내적 기제사용, 정서적인 거리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예로는 ‘나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스스로 거리를 두는 편이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융합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거나 위기 상황 대처 방법, 갈등 처리 방식 등 의사결정 경향성에 대해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대개 큰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필요로 한다.’ 등이 있다. 자아분화 척도는 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지 않다, 4=대체로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은숙(2005)의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계수는 .79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계수는 .888 이었다. 본 척도의 문항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N = 304)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정서적 반응성	(1), (6), (10), (14), (18), (21), (26), (30), (34), (38), (40)	11	.81
자기위치	4, 7, 11, 15, 19, 23, 27, 31, (35), 41, 43	11	.72
정서적 단절	(2), (3), (8), (12), (16), (20), (24), (28), (32), (36), (39), (42)	12	.72
타인과의 융합	(5), (9), (13), (17), (22), (25), (29), (33), 37, (44), (45), (46)	12	.76
	총점	46	.89

()는 역채점 문항임

3. 유기도식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 1991 개정)이 개발하고 조성호(2001)이 번안한 초기 부적응 도식 질문지 중, 유기도식을 측정하는 문항 18개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중간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식의 특성이 더 잘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로서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나를 버릴 것 같은 걱정이 들면 쉽게 떨칠 수가 없다” 등이 있다. 김하늘, 유제민(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8 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계수는 .930 이었다.

<표 4> 유기도식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N = 304)

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유기도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93

C.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유기도식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4.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음 분석 방법의 단계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분화, 유기도식, 관계중독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유기도식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A. 주요 변인별 기술통계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고, 정규 분포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아래 <표 6>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해서 왜도의 절댓값은 2이하, 첨도의 절댓값은 7이하로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아래와 같다.

<표 5>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N = 304)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관계중독	65.94	18.14	30.00	121.00	.58	-.13
자아분화	158.86	22.38	72.00	240.00	-.04	1.22
정서적반응성	36.32	8.01	15.00	61.00	.09	.45
자기위치	35.56	5.84	13.00	57.00	.13	.70
정서적 단절	46.90	7.17	22.00	69.00	-.21	.94
타인과의 융합	40.08	7.85	17.00	64.00	.06	.18
유기도식	43.20	14.35	18.00	85.00	.31	-.48

B.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자아분화, 유기도식, 관계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관계중독과 자아분화, 유기도식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분화는 유기도식($r=-.70$), 관계중독($r=-.46$)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유기도식은 자아분화($r=-.70$)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관계중독은 유기도식($r=.54$)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아분화($r=-.46$)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모형 분석을 위해 각 주요 변인간의 다 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각 주요 변인간의 공차는 0.1을 초과하고, VIF는 1.8~2.5에 분포하였고, 모두 10미만이므로 모든 변인은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304)

	1	1-1	1-2	1-3	1-4	2	3
1	1						
1-1	.87**	1					
1-2	.62**	.42**	1				
1-3	.71**	.49**	.17**	1			
1-4	.86**	.69**	.43**	.48**	1		
2	-.70**	-.63**	-.43**	-.53**	-.54**	1	
3	-.46**	-.45**	-.22**	-.31**	-.40**	.54**	1

주. 1. 자아분화 1-1. 정서적 반응성 1-2. 자기위치 1-3. 정서적 단절 1-4. 타인과의 융합 2. 유기도식 3. 관계중독

** $p<0.001$

C. 매개 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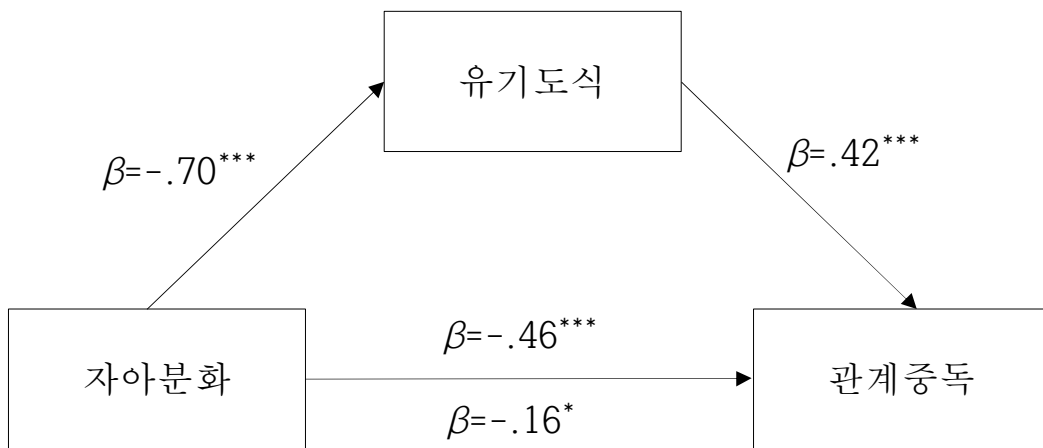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제시된 <표 7>와 같다.

먼저, 1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자아분화는 종속변인인 관계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46, t = -8.95, p < .001$), 설명량은 21% 이다. 2단계에서는 자아분화가 유기도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beta = -.70, t = -16.85, p < .001$), 4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아분화와 유기도식이 동시에 관계중독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며($F = 65.05, p < .001$), 30%의 설명량으로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관계중독과의 관계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매개변인인 유기도식은 관계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기도식은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마지막 분석의 단계로 유기도식을 통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z = -5.90$ 로 나타났으며,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부분 매개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N=304)

단계	변인	β	t	R^2	F
1단계 독립 → 종속	자아분화 → 관계중독	-.46	-8.95***	.21	80.18
2단계 독립 → 매개	자아분화 → 유기도식	-.70	-16.85***	.48	283.84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자아분화 ↘ 유기도식 ↗ 관계중독	-.16 .42	-2.45* 6.30***	.30	65.05



<그림 2>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분석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중독적 관계패턴인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와 관계에서 주요 변인인 유기도식의 중요성을 밝히고, 이후 상담적 개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아분화, 유기도식, 관계중독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유기도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분화, 유기도식, 관계중독 모두 상호간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은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 속에서 긍정 정서와 만족감을 느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이지홍, 2015). 즉, 자아분화는 개인 내적 측면에서 지적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얼마나 잘 분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킴으로써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는 데 객관성을 가지게 되고,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한 수준의 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또,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타인과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적 관계패턴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박지선, 김남희, 천성문, 2002).

또,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유기도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기도식을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중독적인 관계패턴을 갖게 된다. 이는 유기도식을 지닌 대학생이 관계 맺고 있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버려질 것에 대한 인지적 틀로 인해 관계중독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하늘, 유제민, 2017). 즉, 유기도식은 관계중독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와 유기도식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자아분화 수준이 원가족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Mahnaz Moradi,

Tayebeh Akbari, Manzieh Dausti, 2015).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행동 기능과 생활에서의 적응 수준 또한 높고, 특히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기도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분화는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유기도식을 매개로 대학생의 관계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유기도식은 생의 전반에서 타인과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타인이 언제든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됨으로써 관계에서 지속적인 불안에 노출되게 된다. 즉,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특성은 타인으로부터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유기도식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중독적 관계패턴을 갖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왜곡된 신념인 유기도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기도식의 정도에 따라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상담 장면에서 유기도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유기도식을 다룸으로써 관계중독에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중독적 관계패턴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자아분화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발하는 왜곡된 신념인 유기도식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함으로써 관계중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아분화, 유기도식심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 유기도식에 대한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탐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을 설명하는데 있어 원인론적 변수만을 고려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뿐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중독적 관계패턴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가족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된 자아분화 수준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관계에 대한 부적응적 도식인 유기도식에 대한 개입을 함으로써 관계중독 성향을 효과

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G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다른 대상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대상에게 유사한 연구모델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문제를 병리적, 중독적 관점에서 본 관계중독에 대해 임상 집단이 아닌 관계중독성 행동을 보이는 일반 대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특정한 임상 집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아분화, 유기도식, 관계중독의 관계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자아분화, 유기도식, 관계중독의 관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조절이나 매개변인들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VI. 참고 문헌

- 강은숙 (2005). 남녀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커플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여자 대학교 기독교대학원 가족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나루미, 박부진, 김세영 (2016). 대학생의 자아분화 및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4),111-125.
- 김수민 (2016). 심리적 외상경험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슬, 권혁철 (2015).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관계중독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2(3), 517-530.
- 김지연, 심혜원 (2016).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2), 73-100.
- 김하늘, 유제민 (2017). 성인애착, 유기도식 및 중독성격과 관계중독성 집착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9), 485-507.
- 김현옥 (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이성교제와 교제폭력의 실태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 김영금, 김종운 (2016).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대인 간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221-242.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선, 김남희, 천성문 (2002).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분화 및 인간관계 성숙도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3(3), 323-336.
- 박한나 (2015).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 간의 관계: 미성숙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2017).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 안하얀, 서영석(2011). 성인애착과 Young의 단절 및 거절도식에 따른 집단분류와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43-969.
- 우상우 (2014).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계숙, 박주희 (2014). 대학생의 단절 및 거부도식이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학연구, 21(6), 85-110.
- 이설아, 박기환 (2013). 유기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1), 1-17.
- 이수연, 이동훈 (2017). 대학생의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 외상경험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51-479.
- 이유리, 홍정순 (2016). 성인초기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5(2), 151-165.
- 이윤연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아동교육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데이트 폭력관계를 유지 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85-403.
- 이지영, 손정락 (2009). 대학생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신병리적 정서 간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17(1), 11-17.
- 이지원, 이기학 (2014). 불안정 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이지홍 (2015). 자아분화 수준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욕구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시온 (2015). 관계중독, 자기 및 타인용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성경, 김정희 (2004). Bowen이론을 활용한 가족관계 증진 집단상담이 자기분화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3), 823-838.
- 조경미 (2016). 성인초기 자아분화와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 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 최현미(1997). 원가족 접근방법의 유용성과 활용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1(0), 205-239.
- 한미향 (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 대처 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onymous (1986). Sex and love addicts anonymous. Boston, MA: The Augustin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Erik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rev. ed.(New York: W. W. Norton) 7장. Fellowship. Sex and Love Addicts Anonymous, Fellowship-Wide Services.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8, 235 - 246.
- KNS뉴스통신, “[법률조언] 테이트 강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18.3.13.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08333>
- Mahnaz Moradi, Tayebeh Akbari, Manzieh Dausti (2015). Relation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elf differentiation in Referrals to Welfare Center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85, 294-300.
- Martin, G. (1994).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When Good Things Become Addictions] (임금선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은 1990년에 출판.)
- Milad Sabzeharaye Langroudi, Hamid Bahramizadeh, Yadollah Mehri (2011). Schema therapy and family systems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30, 634-638.
- Nam, S. C., & You, Y. D.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2), 51-75.
- Peleg-Popko, O., & Dar, R. (2001). Marital quality, family patterns, and children's fears and social anxiet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3, 465-487.
- Young, J. E., & Lindemann, M. (2002). An integrative schema-focused model for personality disorders. *Clinical advances in cognitive psychotherapy: Theory and application*, 93-109.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5). 심리도식치료(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주리에, 유성진, 이지영역). 서울: 학지사. (원전2003출판).

VII. 부록

<부록 1> 자아분화 척도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다.	1	2	3	4	5	6
2	내가 관심있어 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3	나는 종종 가족들 곁에 있을때 뭔가 억압당하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4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아주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1	2	3	4	5	6
5	나는 대개 큰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필요로 한다.	1	2	3	4	5	6
6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잠시 동안 그와 떨어져 지낸다.	1	2	3	4	5	6
7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누구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8	나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스스로 거리를 두는 편이다.	1	2	3	4	5	6
9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6
10	나는 내가 너무 감정적이지 않기를 바란다.	1	2	3	4	5	6
11	나는 단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1	2	3	4	5	6
12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내 배우자(파트너)는 그것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5	6
13	배우자(파트너)가 나를 비난할 때, 나는 며칠동안 그것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1	2	3	4	5	6
14	내 감정상태가 최상일 때가 있고, 어떤 것을 분명하게 사고하는게 어려울 때가 있다.	1	2	3	4	5	6

15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울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6
16	나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종종 불편함을 느낀다.	1	2	3	4	5	6
17	나는 실제로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1	2	3	4	5	6
18	나는 때때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19	나는 바뀔 수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적이 없다.	1	2	3	4	5	6
20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독립심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1	2	3	4	5	6
21	나는 비평이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다.	1	2	3	4	5	6
22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23	나는 꽤 자기수용적이다.	1	2	3	4	5	6
24	나는 종종 배우자(파트너)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6
25	나는 종종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만 그 사람에게 동의한다.	1	2	3	4	5	6
26	배우자(파트너)와 싸웠다면, 나는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6
27	나는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때조차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1	2	3	4	5	6
28	어떤 관계가 매우 강렬해진다고 느낄 때, 나는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29	부모나 형제·자매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나를 괴롭힐 수 있다.	1	2	3	4	5	6
30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것을 쉽게 내버려둘 수 없다.	1	2	3	4	5	6
31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 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1	2	3	4	5	6
32	나는 가족들 중 누구에게도 정서적 지지를 받기 위해 입장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	1	2	3	4	5	6

33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종종 불안하다.	1	2	3	4	5	6
34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1	2	3	4	5	6
35	나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1	2	3	4	5	6
36	배우자(파트너)와 같이 있을 때 나는 종종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37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6
38	나는 종종 내가 만들어낸 기분에 대해 놀라곤 한다.	1	2	3	4	5	6
39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개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1	2	3	4	5	6
40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1	2	3	4	5	6
4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1	2	3	4	5	6
42	배우자(파트너)가 내가 필요로 하는 여유를 준다면, 우리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다.	1	2	3	4	5	6
43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아주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1	2	3	4	5	6
44	나는 가끔 배우자(파트너)와 싸운 후에 몸이 아픔을 느낀다.	1	2	3	4	5	6
45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부모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46	나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하면서 나와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염려가 된다.	1	2	3	4	5	6

<부록 2> 유기도식 척도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에 따라 V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안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2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곤 한다.	1	2	3	4	5
3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나를 버릴 것 같은 걱정이 들면 쉽게 떨칠 수가 없다.	1	2	3	4	5
4	내가 받는 정서적 지지는 불안정하다.	1	2	3	4	5
5	내게 중요한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6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자꾸 매달리게 된다.	1	2	3	4	5
7	결국 나는 혼자가 될 것 같다.	1	2	3	4	5
8	내가 관심을 쏟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간다는 느낌이 들면 절망스럽다.	1	2	3	4	5
9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해, 아예 내가 그들을 먼저 멀리해 버리고는 한다.	1	2	3	4	5
10	잠시라도 혼자 내버려지게 되면, 마음이 잡을 수 없이 동요된다.	1	2	3	4	5
11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항상 그래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1	2	3	4	5
12	항상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진정으로 친해지기가 어렵다.	1	2	3	4	5
13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은 늘 옆에 있어주기 보다는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곤 했던 것 같다.	1	2	3	4	5
14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면, 내 곁을 떠날 것 같다.	1	2	3	4	5
15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다. 어떤 때는 곁에서 잘해주다가, 어떤	1	2	3	4	5

	때는 화내거나 짜증을 부리고 내게 무관심하거나 시비를 걸어오곤 했다.					
16	내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잃게 될까봐 걱정이다.	1	2	3	4	5
17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막막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잃게 될까봐 걱정이다.	1	2	3	4	5
18	내 본 모습이나 진짜 감정을 내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아 감히 그럴 엄두를 못 낸다.	1	2	3	4	5

<부록 3> 관계중독 척도

다음 문항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성교제 중이지 않거나 교제경험이 없다면, 과거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연애 관계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랑과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요구한다.	1	2	3	4	5
2	나는 너무 일찍 쉽게 사랑에 빠진다.	1	2	3	4	5
3	나는 사랑에 빠지면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조차 그(그녀)와 관련된 생각을 멈추기 어렵다.	1	2	3	4	5
4	때때로 혼자라서 외로울 때, 평소 사람을 사귄 때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나의 수준보다 낮은 사람과 사귄 때도 있다.	1	2	3	4	5
5	나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나는 일단 누군가에게 정이 들면, 쉽게 정을 떼지 못하는 편이다.	1	2	3	4	5
7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 사람이 나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사항들을 모두 무시하게 된다.	1	2	3	4	5
8	나는 사랑에 빠지거나 이성을 선택할 때 첫눈에 끌림이 중요하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별로이다.	1	2	3	4	5
9	평소에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신뢰성이 부족할지라도 믿는 편이다.	1	2	3	4	5
10	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책임지려 한다.	1	2	3	4	5
11	‘사랑’과 ‘이성교제’만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이다.	1	2	3	4	5
12	나는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면 외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한다.	1	2	3	4	5
13	나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며, 고독을 즐기지 않는다.	1	2	3	4	5
14	사랑을 할 대상을 찾지 못할까봐 너무 두렵다.	1	2	3	4	5
15	나는 연애를 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뭔가 온전하지 못한 것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16	내가 사랑에 빠졌을 경우나 상대방이 헤어질 것이라고 위협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못한다.	1	2	3	4	5
17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내가 원하거나 필요한 것,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1	2	3	4	5
18	나는 사랑에 빠지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불안을 억누르고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한다.	1	2	3	4	5
19	나는 사랑을 할 때면 이별로 인한 불안감에 고통 받고 싶지 않아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며, 우울함과 외로움은 물론 상대방의 무시, 부정, 학대 등의 고통스런 감정도 기꺼이 참아낸다.	1	2	3	4	5
20	나는 현실적으로 사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만날 수 없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더욱 중요하다.	1	2	3	4	5
21	나는 남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렵고, 심지어 사소한 거절도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1	2	3	4	5
22	나는 내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23	나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과도한 소유욕과 질투심을 느낀다.	1	2	3	4	5
24	나는 사랑에 빠지면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	1	2	3	4	5
25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낀다.	1	2	3	4	5
26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임자 있는 몸이라 해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27	나는 삼각관계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1	2	3	4	5
28	나에게 사랑이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1	2	3	4	5
29	나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항상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나 미래에 다가올 완벽한 내 이상형과의 사랑을 꿈꾼다.	1	2	3	4	5
30	나는 사랑에 빠지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감정에 저항할 수가 없으며 판단력이 흐려진다.	1	2	3	4	5